

# '조합원 참견 시점'

##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 사장을 원한다

향후 3년간 MBC를 이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1월 30일~2월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서류 면접을 통해 3명의 후보자로 압축합니다(2월 7일). 이후 150인의 시민평가단이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 발표를 듣고 1명을 배제해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2월 18일),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2월 21일)

조합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설문을 2월 2일(목)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MBC의 앞날을 위해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3만원 커피 상품권 15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기간 : 2023. 1.30 13:30 ~ 2023. 2. 2 17:00

보내실 곳 : [mbcunion2012@gmail.com](mailto:mbcunion2012@gmail.com)

■ 현재 MBC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차기 사장이 대외적으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 MBC 경쟁력 확보

정치적 외압에 대한 견제 및 방어

공영방송으로서 대국민 공공성 강화

■ 차기 사장이 내부 경영 과제로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적재적소, 능력에 따른 인사

내부 갈등 완화 및 조직 문화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효율적 경영

지역사등과의 전략적 발전 방안 마련

■ 차기 사장의 자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및 철학

과거 업무 성과와 경영 능력

개인적 인품 및 조직 내 평가

의사소통 의지와 실행 능력

■ 차기 사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공정성

진취성

안정성

도덕성

■ '이런 점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기 사장의 결격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 및 철학 부재

보도 및 제작의 공정성 및 자율성 훼손

경영 마인드 부재

근로조건 악화 및 노사관계 훼손

기재하신 사항은 2023 MBC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용도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현재 공영방송 MBC를 둘러싼 외부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외부의 공세 수준이 우려스럽다

항상있었던 수준과 다르지 않다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는다

■ 이 상황에서 차기 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외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보도와 제작에 더 신중해야 한다

외부의 시비와 마찰에 일절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외압의 부당성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 이번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긍정적이다(7-1 항목으로)

부정적이다(7-2 항목으로)

선임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

■ 7-1. 사장 선임 절차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시민평가단 도입

선임 절차 공개의 투명성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중립성

■ 7-2. 사장 선임 절차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권한 과다

시민평가단 도입 및 역할 부적절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 절차 부재

■ 이번 사장 선임 절차와 기존 절차의 큰 차이점은 150인의 시민평가단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시민평가단은 서류 평가를 통해 3인으로 압축된 사장 후보 중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시민평가단을 도입한 것 자체로 긍정적이다

시민평가단 도입은 긍정적이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아쉽다

시민평가단 도입은 긍정적이나 역할이 과도하다

시민평가단을 신뢰할 수 없어 부정적이다

잘 모르겠다

■ 현행 사장 선임 절차에서도 시민평가단과 MBC 구성원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장을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 사장 선임 절차에 조합원 등 MBC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면 어느 단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서류 심사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 반영
- 정책설명회에서 구성원의 질의/응답 참여
- 최종 후보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 반영
- 매 선임 절차마다 구성원의 의사 반영

■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평가단과 MBC 구성원의 정량적 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이사회, 시민평가단, MBC 구성원의 평가 점수를 모두 일정 비율 반영하는 것이 좋다
- 이사회, 시민평가단의 평가 점수만 일정 비율 반영하는 것이 좋다
- 시민평가단, MBC 구성원의 정량적 점수를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 이사회와 시민평가단, MBC 구성원의 평가 점수가 모두 반영된다면,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이사회, 시민평가단, MBC 구성원 평가 점수 동일 비율 반영
- 이사회 평가 최대 반영
- 시민평가단 평가 최대 반영
- MBC 구성원 평가 최대 반영

■ 차기 사장 후보들의 면접관이라고 가정했을 때, 후보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